관계부처 합동	보 도 자 료	
2014. 3. 7(금) 조간(온라인 3. 6(목) 14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과장 강도현(02-2110-2850), 송규철 사무관(02-2110-2854)		
중기청 창업진흥과 김성섭 과장(042-481-4407), 이하녕 사무관(042-481-8914)		

“민간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성과 조기 가시화 추진”
미래부·중기청 『글로벌 엑셀러레이터』 본격 육성 !

– 제7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, 「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」 확정 –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문기)와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이 공동으로 **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·벤처 활성화를 지원할 엑셀러레이터(Accelerator)*를 본격 육성**한다.

* 엑셀러레이터 :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초기 창업자를 발굴, 투자뿐만 아니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·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‘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

○ **3.6(목)** 오후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**제7차 「창조경제위원회」**에서 논의·확정된 「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」은 최근 **선진 각국***에서 각종 **창업·벤처 정책의 핵심**으로 등장하고 있는 **엑셀러레이터의 집중 육성**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.

* 주요 사례
- 미국 :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 중이며 산업 클러스터 연계형 엑셀러레이터 육성 및 국가 차원의 통합 데모데이(demoday) 개최
- EU : 전문 협의체 EU Accelerator Assembly 운영 및 성과정보 공개
- 핀란드 :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VIGO 프로그램 운영
- 캐나다 : 엑셀러레이터 10개를 선발 5년간 운영비 6천만불 및 1억불 후속투자 지원

□ 엑셀러레이터는 글로벌기업·성공 벤처기업 등이 **축적된 경험과 노하우, 자산**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**「아이디어 발굴→초기투자→멘토링·네트워킹→해외진출」**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여 **창업기업의 성공률**을 높이고 **성장을 가속화**(accelerating)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으로,

o **이미 미국의 와이컴비네이터(Y-Combinator, '05~)*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2천개 이상**이 운영 중이며, 각 **산업 분야별로 전문화**되고, **구글, 코카콜라, 나이키 등 해외 글로벌 대기업**이 참여하는 **기업형 엑셀러레이터 운영**도 확산 중에 있다.

* 560여개사 지원, 에어비앤비(숙박공유)·드롭박스(클라우드) 등 다수의 스타트업 성공신화 및 대형 M&A 창출 → 창업 생존율 90%, 평균 기업가치 4천5백만불

o 반면, 국내에서는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**20여개의 엑셀러레이터**가 운영 중이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*를 보이고 있으나, 전반적으로는 **아직 양적·질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**에 있는 상황이다.

* '프라이머'가 지원한 '퀵캣'(모바일 중고장터 앱, 네이버 M&A), '스파크랩'이 지원한 '미미박스'(맞춤형 화장품 판매 앱, Y-Combinator에 국내 최초 선발) 등 200여개의 유망 기업을 발굴·지원

□ 이번 계획에서 담고 있는 **엑셀러레이터 육성의 방향은 크게 3가지**로 요약된다.

o 우선, **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역량 강화**를 위해

① 해외 유수 엑셀러레이터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공동 발굴·육성 지원, 해외 관련 협의회·교육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를 통한 **글로벌 역량 확충**, ②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를 시작으로 한 **산업분야별**, 스타트업의 **성장 단계별** 특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**전문화** 그리고 ③ 금년부터 설립 예정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**지역별 특성화** 등이 추진된다.

o 두 번째로 **엑셀러레이터의 협업체계 확충**을 위해

① **대기업과 선도벤처의 참여를 확대**하기 위한 방안으로 △ 대기업·선도벤처가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하는 '창업기획사' 운영을 정부가 후속으로 지원하는 방식, △ 엑셀러레이터의 대기업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, △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수요 연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다.

② 또한, 엑셀러레이터가 벤처캐피탈, 창업보육센터 등 **기존의 창업 지원기관과 콘소시엄을 구성**하여 후속투자, 보육공간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하고, ③ 공모전, R&D 등에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해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한 멘토링과 후속투자 및 해외진출 시 전문 컨설팅 등 **패키지식의 지원**도 추진된다.

o 세 번째로 **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기반을 구축**하기 위해

① 성공 노하우의 체계화와 공동투자 등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한 **엑셀러레이터 전문 협의회***를 구성(3월 중 출범 예정)하고, ② 스타트업의 합리적 선택과 성과 검증 등을 위해 엑셀러레이터의 **성과정보 제공과 공유체계**가 마련되며, ③ 본격적인 엑셀러레이터 육성에 필요한 **법·제도화 과제**도 향후 본격 논의키로 하였다.

□ 미래부와 중기청은 오늘 창조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의 세부 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나가는 한편, 앞으로도 「**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**」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**제도 개선과제를 발굴**하고, **대기업・선도벤처들의 참여를 더욱 유인할 방안**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.

[붙임]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